

신앙자유 운동에 나타난 개혁사상

최 동 희

(고려대학교)

1. 전라 감사를 향한 청원운동

1892년 11월 1일 몇 천명의 동학 신도가 삼례역에 모였다. 이것은 동학으로서 처음으로 감행하는 큰 시위 운동이었다. 이렇게 집단적인 시위를 결들이면서 동학의 지도층은 전라감사에게 강경한 청원서를 냈다. 그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1)수운이 사학(邪學) 특히 서학을 한다고 하여 처형되었으나 사실은 천인합일의 도로써 덕을 천하에 퍼고 창생을 널리 구제하려고 하였다. (2)지금은 유학(儒學)이 아니라도 종교로서 용인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오직 동학만을 탄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불법이다.

요컨대 임금에게 아뢰어 수운의 억울한 죄명을 풀어주고 한편으로는 각 고을에 공문을 내려 동학 신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누구나 자유롭게 동학을 믿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적어도 1886년의 한불조약 이후에는 천주교와 아울러 개신교도 사실상 자유롭게 믿게 되어 있던 사회 실정에 비추어 동학 쪽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 이경직은 시일을 끌어 5일쯤 뒤에야 다음과 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동학은 조정에서 금하는 것이다. 몇몇한 인간성을 이미 타고났는데 어찌하여 정(正)을 버리고 이(異)에 취(就)하여 범과(犯科)하느냐, 다시 미혹치 말라.”

동학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매우 독선적인 반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자 동학 신도는 격분하여 그대로 순순히 물러갈 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강경한 청원서를 전라감사에게 내기로 하였다. 바로 이 달 7일에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청원서를 냈다.

(1) 감사가 동학을 이단이라고 하는 까닭을 알 수 없다. 동학은 유불선(儒佛仙)의 도를 통합하여 충군과 효친에 힘쓰고 정성껏 하느님을 섬기는데 그 취지가 있는 올바른 종교이다.

(2) 관리와 토호가 합부로 동학 신도를 못살게 구는데 이것은 터무니없는 불법이다.

(3) 위로 임금에게 아뢰어 동학을 세운 수운의 억울한 죄를 씻고 아래로 각 고을에 공문을 내려 신도에 대한 폭행을 없애 달라.

이렇게 동학 측이 끈덕지게 요구하면서 물러가지 않을 기세를 보이자 감사 이경직은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할 수 없이 이 달 9일에 관내의 각 고을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내리게 되었다.

“동학은 조정에서 금하는 것이므로 우리 지방에서도 마땅히 조정의 신칙(申飭)에 따라 금할 따름이다. 그런데 지금 각 고을에서 이 금단을 핑계삼아 합부로 전재(錢財)를 빼앗고 인명을 상해한다고 하니 이러한 짓은 정법(政法)상으로 용서할 수 없다. 이 공문을 받는 즉시 관내에 명령 경계하여 만일 미혹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고쳐 정학(正學)을 닦게 하고 관리들은 한 푼이라도 빼앗지 못하게 금단하라.”

이것은 감사로서 할 수 있는 성의를 다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이로써 동학 측에서도 우선 어느 정도 만족하게 되었다. 물론 교조의 신원이 목적이지만 이것은 본래 조정에서 결정할 문제일 뿐이고 감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학의 지도층은 우선 집결한 신도를 해산시키고 다음의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몇 만 명이나 되는 들뜬 군중을 잘 타이르기 위해 교주 해월이 직접

삼례역으로 가서 그 군중 앞에 나서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중도에서 말 사고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손천민(孫天民)을 통해 간접으로 다음과 같은 요지의 글을 군중에게 전했다.

(1) 돌아가신 스승님의 억울한 죄는 아직 씻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신도의 성의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자나깨나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마음을 굳게 가져야 한다.

(2) 우선 집에 돌아가 납세를 제때에 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고 저마다 직업에 충실하고 주색 노름 따위를 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이번 청원 운동에 가산을 잃은 사람들이 있는데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들을 도와 서로 합심하여 앞으로 올 큰 일에 대비해야 한다.

(4) 복합(伏閣)에 대한 계획은 다시 짜기로 하고 그 계획이 서는 대로 곧 다시 지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삼례역에 모여서 시위하던 많은 신도를 잘 타일러 모두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 이와 동시에 동학의 지도층은 각처의 신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번에 공주와 전주의 두 감영에 일제히 호소한 것은 선사(先師)의 억울한 죄명을 씻으려는 대의를 위해서였다. 비록 다소 동학의 이름을 드러내기는 하였지만 아직 스승님의 억울함을 풀어 드리지 못하였다. 우리 도인(道人)은 더욱 성심을 다하여 기천(祈天) 염사(念師)해야 한다. 이리하여 법사장(法師丈)이 다시 지휘함을 기다려 신원(伸冤)에 종사하는 것이 곧 우리들의 도리다. 이 감영의 처리도 이렇게 할 것을 가르쳤으므로 도인들은 곧 집에 돌아가서 수도에 힘쓰고 도로에서 방황해서는 안된다”(『천도교회사』 : 16).

여기에서 법사장이란 교주 해월을 가리킨다. 여기에 동학 지도층의 의도가 잘 나타나 있다. 다시 말하면 동학 측은 신도를 괴롭히는 관리의 불법 행위는 감사의 공문으로 금지되었다고 믿고 교조의 신원은 감사에게 그 권한이 없으므로 조정에다가 청원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학 지도층은 감영을 상대로 청원을 하는 동안에 동학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깨닫게 되어 조정을 상대로 하는 새로운 차원의

운동을 펴기로 계획하게 되었다. 드디어 해월은 1892년 12월 6일에 조정에 직접 청원하기 위해 그 지휘소를 충청도 보은에 있는 장내리라는 마을에 두었다. 이어 부서와 임원을 선출하여 널리 신도의 뜻을 반영하고 혹은 때에 따라 신도를 지휘하기로 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듣자 각처에서 신도가 구름같이 모여들어 일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므로 지도층은 각처의 신도에게 다음과 같은 통지서를 보내기까지 하였다.

“우리가 법사의 지휘에 따라 전국의 신도를 망라하고 육임(六任)을 임명하여 도소(都所)를 이 곳에 마련했다. 이것은 선사의 신원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차 여러 의견을 널리 참작하여 때에 따라 일을 의논 결정하려고 했다. 그런데 각지의 여러 신도가 소문을 듣고 운집하여 대단히 복잡하다. 하루 종일 송영(送迎)에 일할 틈이 없으므로 이제 이후에는 각 두령의 승인 서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도소의 출입을 허용치 않을 것이니 이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라”(『천도교회사』 제2편: 11).

이것은 공주와 전주의 두 감영에 강력히 청원을 한 뒤에도 지방 관리들에 의해 동학 신도가 지독히 시달림을 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전라감사 이경적이 관내의 각 고을에 명령하여 동학 신도에 대한 관리들이 비행을 엄금하였는데도 관리들은 조금도 반성하는 기색 없이 더 날뛰었다. 썩을 대로 썩은 관리들이니 동학 신도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백성까지 동학으로 몰아 재물을 빼앗는 판이었다. 더욱이 이 해 11월에는 가짜 암행어사까지 나타나 신도를 마구 위협하고 재물을 빼앗았다. 그러므로 해월은 다음과 같은 지시까지 내렸다.

“법(法)은 천하의 공(公)이고 일인의 사(私)가 아니다. 지금 이(李)·노(盧)·임(林) 등 삼인이 삼남 어사라고 하면서 협잡꾼들과 짜고 도인들을 위협하고 재물을 우려먹는다고 한다. 이 삼인이 과연 왕명을 받았다고 하면 공정하게 조사하고 시정함으로써 임금의 뜻을 천하에 드높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공(公)을 핑계삼아 사리를 피하고 재물을 우려먹고 있으니 어찌 수상하고 의심스럽지 않으리요. 장차 그 동정을 보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체를 밝혀낼 것이니 각포(各包)의 교도는 이 지시에 따라서 한 톨이라도 내주지 말라”(『시천교종역사』 제2편: 8).

이렇게 동학 신도는 이래저래 들볶이고 시달리게만 되었다. 전라감사의 처리에

한동안 기대를 걸어 보았으나 이것 역시 아무런 성과가 없음을 알게 된 신도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각처에서 장내의 지휘소로 운집한 것이다.

2. 임금을 향한 직접적인 청원운동

동학 지도층은 신도의 아우성 속에서 좀더 효과적인 운동 방법을 모색하였다. 다음과 같은 요지의 청원서를 정부에 직접 내기로 하였다.

“(1) 공맹(孔孟)의 도를 행하는 사람은 양목(楊墨)을 가리켜 이단이라 하고 양목의 도를 행하는 사람은 공맹을 가리켜 이단이라고 한다. 이단이란 그 당시에 신봉하는 도와 다른 것을 가리킬 뿐이고 꼭 그릇된 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2) 최제우가 세운 동학은 유불선 삼교의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종합한 것이다. 원래 삼교는 그 이름은 다르지만 하늘을 섬기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므로 동학은 천명(天命)을 진심으로 따를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을 섬기듯이 어버이를 섬기고 임금을 섬길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진정한 효와 충을 가르친 것이 동학을 세운 우리 스승의 큰 공이다.

(3) 그러나 세속이 야박하여 도리어 억울한 죄명으로 순교한 지 30년이 되었으나 아직도 스승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였다. 지난달에 공주와 전주 감영에 청원한 것은 오직 스승의 억울함을 풀고 신도에 대한 관리들의 비행을 금지하기 위해서였다.

(4) 공주 감영에서는 동학은 조정에서 금지하는 것이니 감영에서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다고 한다. 조정의 법령이 변치 않는다면 공주 감영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관리들이 동학 신도를 못살게 굴 것이다. 지금 이 법령으로 말미암아 호서·호남의 각처에서 관리와 토호가 재물을 함부로 빼앗고 인명을 마구 살상하고 있어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가 하늘에 가득 차 있다. 이러한 비참한 실정을 임금에게 전하여 주기 바란다”(『관물 기록 수운제문집』: 29).

그러나 관리와 토호들은 청원 운동을 전개한 이후 보복적으로 더욱 탄압하였고, 일반 백성들까지도 동학으로 몰아 못 살게 하였다.

동학 지도층은 1893년 1월에 드디어 다음 단계의 운동을 결의했다. 곧 서울 대궐 앞에 엮디어 상소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청주 송산리에 그 지휘소를 마련하고

각처의 신도에게 통지를 하여 널리 의견을 물으면서 일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서병학(徐丙鶴)으로 하여금 상경하여 서울에 지휘소를 마련케 하였다. 이러한 준비가 끝나자 2월 8일(陰)에 많은 시도가 과거를 보는 선비로 변장하여 상경하였다. 한성부 남서 남소동에 있는 지휘소에 모여 모든 준비를 갖춘 뒤에 드디어 2월 11일(陰 3월 29일) 소두 박광호(朴光浩)를 비롯한 40여명이 경복궁 광화문에 엮디어 상소를 하였다. 그 상소한 글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근래에 세상에는 도덕을 닦는데 힘쓰는 참된 선비가 거의 없다. 그저 실속없는 문장을 꾸미는데 힘써 한갓 겉치레만을 일삼고 혹은 성현들의 경전을 슬쩍 따다가 자기 것으로 꾸며 이름 나기만 바라는 선비들이 뒤끓고 있다. 이러한 말세에 다행히 최제우가 천명을 받아 새 종교를 세우고 포교하기 시작했다.

(2) 그가 포교한 지 3년도 못되어 그만 이단으로 몰려 억울하게도 극형을 받게 되었다. 털끝만큼도 잘못이 없는데 터무니없는 증상으로 끔찍스러운 형벌을 받았다.

(3) 그의 가르침은 공자의 가르침과 대체로 같고 조금만 다를 뿐이다. 곧 정성과 공경과 믿음으로써 천지를 경봉(敬奉)하고 이를 섬기기를 부모를 섬기듯이 하라는 데 있다. 이리하여 그것은 자연히 유불선의 삼교를 통일하는 원리를 갖추고 있다. 곧 출가나 선유(仙遊)로 말미암아 군부를 저버리지 않고 불·선의 2교 속에 있는 자비와 수련의 덕을 아울러 갖추으로써 공자의 빛나고 훌륭한 가르침을 조금도 손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4) 그 가르침의 명칭은 본래 동학이 아니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서학이라고 지목하였기 때문에 동쪽에서 세웠다는 뜻에서 동학이라고 하여 서학과 구별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서학이라고 지목하여 물리쳐도 안되고 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동학이라고 하여 억눌러도 안된다. 그 가르침은 지난날 성인들도 아직 밝히지 못했던 대도(大道)를 처음으로 밝혀 내어 어리석은 백성들도 천리(天史)의 근본을 모두 알게 하였다. 그가 가르친 도는 동학이라는 치우친 이름으로 부를 수 없는 천하의 끝없는 대도(大道)일 따름이다.”

이러한 상소문의 내용을 통해 그 무렵의 동학이 정신적으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엿볼 수 있다. 여기서는 동학의 요지를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다. 그 하나는 “하늘을 섬기기를 부모를 섬기듯이 한다”(事天如父母)는 것이다. 동학의 요지가 “하느님을 모신다”(侍天主)는 데 있다는 것을 앞에서 이미 언급했다. 여기서 모신다는 말 대신에 “섬기다”(事)는 말을 쓴 것은 유교의 「공자가어」(孔子

家語)에 있는 용어를 본딴 것이다.

“어진 사람이 아버이를 섬기는 품은 하늘을 섬기는 것과 같고 하늘을 섬기기를 아버이를 섬기듯이 한다”(仁人之事親也如事天事天如事親).

이렇게 유교에서 하늘을 섬기기를 아버이를 섬기듯이 한다는 말을 써왔다. 여기서 동학에서 쓰는 모신다는 말만을 피하고 섬긴다는 말을 씀으로써 유교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다. 하느님(天主)이라는 말을 피하고 하늘(天)이라는 말을 쓴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늘을 섬진다고 말할 때의 하늘은 곧 하느님을 뜻하고 있으므로 굳이 하늘이라는 말을 썼다. 이렇게 유교 측을 이해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표현 및 이론을 모색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러나 유교 측의 비위를 맞추는데 그치지 않고 좀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려 하고 있다. 즉 유불선의 삼교를 말하는 속셈도 유교만이 참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유교 측에 알리려는 데 있는 듯하다. 이렇게 불교와 선교의 의의를 유교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입장에서 동학은 바로 이 삼교를 통일하는 원리를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설득하는 힘이 매우 강한 아주 기발한 착상이다. 삼교를 인정한다면 이 삼교를 통일하는 원리를 갖추고 있는 것도 인정해야 할 뿐 아니라 후자가 삼교보다 차원이 높은 종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동학은 삼교를 통일하는 원리를 갖춘 높은 차원의 종요라는 것이 밖으로는 가장 설득력을 나타낼 수 있었고 안으로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동학이라는 이름은 처음에 서학과 구별하기 위해 편의상 붙인 이름일 뿐이고 사실은 “천하의 끝없는 대도”(天下無極之大道)라고 해명하게 된 것이다. 뒷날 동학이라는 이름을 바꾸어 천도교라고 부르게 된 요인이 여기에서 이미 싹터 왔다.

이러한 상소는 그 글 내용과 그 밝은 절차로 보아 그 당시 지배층에게 큰 반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동학 신도 40여 명이 유생의 몸차림을 하고 대궐 앞에 엎디어 3일 동안 청원하였다. 이 때 궁중에서는 세자의 생일을 경축하기 위한 여러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40여 명의 무리가 버티고 색다른 청원을 하는 것이었다. 어리둥절한 조정에서는 3일만에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

“너희들은 모두 집에 들어가 자기 일에 힘쓰면 바라는 대로 처리할 것이다”(『시천교종역사』 제2편: 하).

이러한 지시가 내리자 동학 신도는 곧 흩어져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 운동의 여파는 뜻밖으로 컸다. 그들이 흩어진 지 이틀만인 2월 15일 이단을 경계하는 임금의 신칙이 내려졌다. 이어 2월 18일 이견중(李健重)등이 동학을 이단으로 낙인찍고 이번의 무엄한 행동을 철저히 조사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상소를 하였다. 이 달 21일 대사간 윤길구(尹吉求)가 동학의 무엄한 행동을 규탄하는 상소를 했고, 23일 병조참판 이근수(李根秀)가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히는 상소를 했다. 25일 역시 이번 사건을 규탄하고 주도자를 엄단할 것을 요구하는 옥당연소와 수선 이범찬(李範贊)의 상소가 있었다. 이러한 소동이 있는 뒤 2월 26일 비로소 동학에 대한 조정의 마지막 단안이 내려졌다. 곧 지난 11일 무엄하게도 대궐 앞에 엎디어 올린 소장의 소두를 기한부로 잡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동학의 무리가 또 다시 모여서 떠들면 그곳 관장의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동학 측 요구를 모두 무시하고 거부하는 일방적이고 강경한 조치인 것이다. 이것으로써 동학으로서 가능한 평화적 운동인 소청운동(訴請運動)은 완전히 실패로 끝난 셈이다.

3. 청원운동에 나타난 개혁사상

먼저 전라감사에게 청원한 내용에 나타난 천도교쪽 사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1) 천도교는 지금 우리 나라에서 그토록 권장하는 유학의 정신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천도교의 교리는 유·불·선의 가르침을 통합한 종합적인 진리이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도교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어버이에게 효성을 하고 하늘(天)을 정성껏 섬기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 올바른 종교이다. 여기에는 알고 보면 유학을 정치 이념으로 삼고 있는 정부의 의도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특히 “유·불·선의 통합”이라는 점은 주자학 중심의 당시 정치이념과 다소 거리

가 있다. 유학 이외의 학파 또는 종교도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늘(天, 하느님)을 정성껏 섬긴다는 점도 좁은 의미의 '주자학적인 유학'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하늘은 곧 이다"(天卽理)라는 신유학에서는 하늘은 숭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2) 관리와 토호가 합부로 천도교 신도를 괴롭히고 폭행·약탈하는 데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불법이다. 이렇게 민권에 대한 강한 요구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민권의 요구가 외세에 대한 배격운동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상은 임금을 향한 청원운동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더욱 강화된다. 이렇게 신앙자유 운동에 나타난 사상을 다시 요약한다면 그 하나는 신앙자유의 요구이고 그 다른 하나는 민권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